

# IT산업군의 주도하에 4.8% 경제성장률 전망

## 2010년 경제 및 산업 전망

2010년 GDP는 전년 상반기 부진의 기저효과로 4.8% 성장이 전망된다. 2010년 민간소비는 경기부양 효과의 감소, 고용 부진, 교역조건 악화로 4.2% 내외의 증가가 예상된다. 2010년 제조업 내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는 IT산업군이 주도할 전망이다. 생산은 전년대비 기저효과와 수출 및 내수의 회복세에 힘입어 대부분의 업종이 증가세로 돌아서는 가운데, IT산업군이 제조업 생산을 견인할 전망이다. 수출은 원화절상 기조가 제약요인이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중국과 개도국에 대한 수출 호조로 10.8% 증가하여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10대 주력업종의 수입은 2009년의 24.0% 감소에 대한 기저효과로 12.4%의 높은 증가율이 전망되나, 규모는 2008년에 못 미치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본 고는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0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

## I. 거시경제 전망

### 현 경기 판단 : 빠른 회복세이나 일시적 요인의 기여 큰 편

국내경기는 2009년 2분기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추이를 보이겠다. 이미 자산가격 회복,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회복세로 돌아섰고 수출도 물량기준으로는 6월 이후 증가세를 보였으며, 실물지표의 회복세 확산 추이, 선행 지표 움직임 등은 회복국면 지속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최근의 빠른 회복세에는 급락 이후의 반등효과, 경기부양책 및 환율 효과 등 일시적 요인의 기여가 크다는 점에서 향후 회복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상반기에는 정부소비와 공공건설투자, 중반 이후에는 경기부양책에 힘입은 내구재 소비증가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의 상대적 호조 및 최근 회복세에도 환율 효과와 중국 등 주요수출시장의 경기부양 효과의 기여가 큰 편이다. 또한 국내외 불안요인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경계가 필요하다.

### 세계경제 : 완만한 회복세 전망

세계경제는 금융위기 이후의 극심한 침체를 벗어나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경기 회복의 속도는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 경제는 2010년중 약 1%대의 낮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반면, 개도국 경제는 빠른 성장세 회복이 전망된다. 세계 교역은 선진국 부채조정, 보호무역주의 확산 영향으로 제한적인 회복이 예상된다.

### 국제유가 및 환율 : 유가는 최근 수준에서 변동, 환율은 하락기조 지속

국제유가는 세계경기 침체 하에서도 미 달러화 약

세 등 금융요인에 의해 최근 들어 예상보다 빠른 오름세가 예상된다. 최근 유가 대비 추가 상승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달러 환율은 국내외 경기회복에 따라 완만한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글로벌 달러 약세의 진전 추이에 따라서는 하락세가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 2010년 경제성장 : 경기회복, 전년 상반기 부진의 기저효과로 4.8% 성장

회복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회복속도는 최근보다 둔화되겠으나 전년 상반기 부진의 기저효과로 2010년 GDP는 4.8%의 성장이 전망된다. 전년 기저효과로 상하반기 격차가 큰 상고하자 성장패턴(전년동기비)을 보일 전망이다.

기저효과를 제외한 실제 회복속도나 체감 회복추이는 훨씬 완만할 전망이다. 2009년 상반기 부진의 기저효과가 배제된 2010년 하반기 성장률(3.3%)이 체감 회복속도에 좀 더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구전략이나 부양효과 감소에 따른 세계경제의 재침체 가능성, 달러 약세 급진전시 유가 및 환율 급변동 가능성 등이 주요 불안요인(downside risk)이 있는 반면, 경기회복에 따른 국내 주요산업의 재고 rebuilding 속도는 새해 성장률을 상당폭 높일 수 있는 주요 변수(upside risk)이다.

중기적으로 이번 경기회복은 과거에 비해 수출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세계교역의 침체 폭이 깊고 부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수출환경이 불리하다는 점에서 회복세가 완만할 전망이다.

### 민간소비 : 부양효과 감소, 고용부진, 교역조건 악화로 GDP보다 낮은 증가 전망

2010년 민간소비는 경기부양 효과의 감소, 고용부진, 교역조건 악화로 GDP 성장률보다 낮은 4.2%

내외의 증가가 예상된다.

**설비투자 : 소비 및 수출회복, 전년 침체의 반등 효과로 투자릿수 증가**

소비와 수출의 회복, 전년도 급감의 반등 효과로 2010년 설비투자는 두 자릿수 증가를 예상된다.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이 설비투자 증가를 주도할 전망이다.

**수출입 : 수출증가율 12.8%, 무역수지 236억 달러 흑자 전망**

2010년에는 세계경기 회복으로 수출입이 모두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원화절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따라 수출은 13%내외의 증가율을 달성할 전망이다. 수입은 내수 회복,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수출회복에 따른 중간재 수입 증가 외에 2009년 부진의 기저효과 등으로 20% 가까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흑자규모는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어 240억 달러 내외의 무역흑자가 전망된다.

(표 1) 주요 거시경제 지표 전망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2009			2010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GDP (경기대비)	-3.2 (1.4)	3.4 (2.0)	0.1 -	6.4 (0.7)	3.3 (0.9)	4.8 -
민간 소비	-2.6	3.3	0.3	5.5	3.0	4.2
건설 투자	2.8	4.0	3.4	2.2	2.9	2.5
설비 투자	-19.5	0.5	-9.8	19.3	9.7	14.1
통관기준 수출 (%)	1,653 (-22.8)	1,987 (-4.5)	3,639 (-13.8)	1,935 (17.1)	2,170 (9.2)	4,105 (12.8)
통관기준 수입 (%)	1,451 (-34.3)	1,786 (-16.7)	3,236 (-25.6)	1,820 (25.4)	2,049 (14.8)	3,869 (19.6)
무역수지	202	201	403	115	121	236

주 : 1) 전기대비 성장률은 분기GDP의 전기비 성장률 평균  
2) 무역수지는 통관기준 수출입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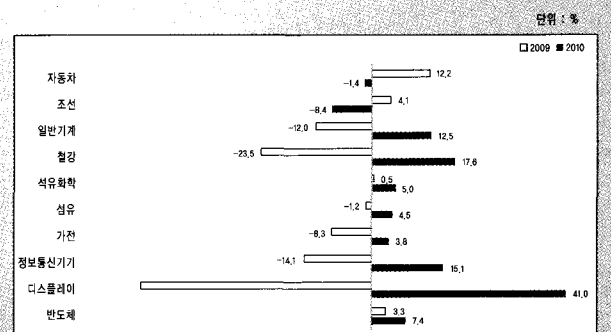
**II. 산업별 전망**

**IT산업군이 제조업 내수 증가를 주도할 전망**

IT산업군은 원도 7 출시에 따른 PC 교체 수요, 남아공 월드컵 특수, 스마트폰 시장 확대, LED와 태양전지 수요 증가로 여타 산업군보다 내수 증가율이 높을 전망이다. 특히 디스플레이는 전년대비 기저효과와 전방산업 호조로 41%의 매우 높은 증가율이 기대된다.

비IT산업에서는 건설 및 설비투자 회복에 따른 일반기계와 철강 내수가 10%이상 증가하고 섬유와 석유화학은 완만히 증가하는 반면, 자동차와 조선은 부진할 전망이다. 자동차는 노후차 세제감면책 종료,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구매력 감소로 1.4% 감소할 전망이다.

(그림 1) 2010년 주요 업종별 내수증가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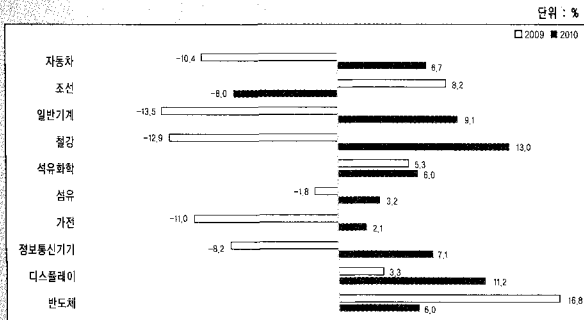
**수출과 내수 회복으로 생산은 높은 증가세 전망**

전년 대비 기저효과와 수출 및 내수의 회복세에 힘입어 대부분의 업종이 증가세로 돌아서는 가운데, IT산업군이 제조업의 생산을 견인할 전망이다. 디스플레이는 11.2%,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는 6~7%대로 높을 전망이나, 가전은 개별소비세 부과로 대형 가전 매출 둔화가 예상되어 2.1%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비IT산업에서는 설비투자 확대와 수출 호조가 기대되는 일반기계, 철강, 자동차가 높은 증가세인 반면, 조선은 감소할 전망이다. 2009년 8.2%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조선은 기저효과와 글로벌 선시들의 재정악화로 인한 인도 연기로 8.0% 감소할 전망이다.

〈그림 2〉 2010년 주요 업종별 생산증가율 전망



주 :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제품, 섬유는 섬유사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10대 주력산업 수출은 10.8% 증가로 2008년 수준에 근접 예상

수출은 원화절상 기조가 제약요인이나,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중국과 개도국에 대한 수출 호조로 10.8% 증가하여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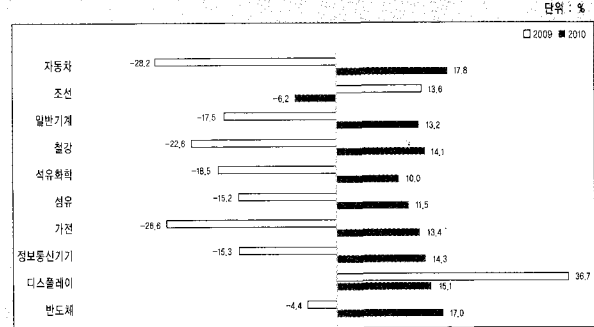
월드컵 특수, 윈도 7 출시 등에 따른 수출여건 개선으로 15.2% 증가하는 IT산업군이 제조업 수출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17.0%, 디스플레이 15.1%, 정보통신기기 14.3%, 가전 13.4%로 높은 증가세가 전망된다.

비IT산업에서는 건조물량이 지연되고 있는 조선만 수출이 감소하고, 나머지 업종은 모두 세계수요 회복으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자동차, 일반기

계, 철강은 13~18%, 섬유와 석유화학은 10~11% 증가세가 전망된다.

총수출에서 10% 안팎의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조선, 정보통신기기, 자동차, 반도체로서 4개 산업의 합계는 41%에 이를 전망이다.

〈그림 3〉 2010년 주요 업종별 수출증가율 전망



주 : 달러표시 가격 기준

〈표 2〉 2010년 산업전망 기상도

	내수	생산	수출	수입
자동차	☁	☀	☀☀	☀☀
조선	☔	☔	☔	☔
일반기계	☀☀	☀	☀☀	☀☀
철강	☀☀	☀☀	☀☀	☀
석유화학	☁	☀	☀	☀☀
섬유	☁	☁	☀☀	☀☀
가전	☁	☁	☀☀	☀☀
정보통신기기	☀☀	☀	☀☀	☀☀
디스플레이	☀☀	☀☀	☀☀	☀☀
반도체	☀	☀	☀☀	☀☀

주 : 1) 전망 :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10%이하 ☔☔, -5%~-10% ☔, -5~0% ☁, 0~5% ☁, 5~10% ☀, 10%이상 ☀☀  
 2) 생산과 내수의 경우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제품, 섬유는 섬유사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3) 수출과 수입은 모든 업종에서 달러화 가격 기준